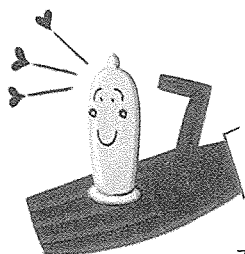


해외여행자를 위한 AIDS(무 전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십시오

AIDS란 무엇인가?



AIDS는 바이러스(HIV)에 의한 전염병으로 일단 감염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파괴시키므로써 치명적인 감염증이나 암을 일으켜 결국은 생명을 잃게

하는 무서운 병이다.

현재 이 병의 예방백신이나 치료약은 개발되지 않았지만, 예방법을 알고 실천한다면 100% 예방이 가능한 병이다.

여행중에 AIDS를 예방하려면?

여행중의 섹스-콘돔만이 유일한 예방책

여행중에 잘 알지 못하는 대상과의 성행위는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콘돔을 사용한다고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 즉 콘돔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구하기 어려운 물건은 아니지만 만일을 위해 미리 준비해 떠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수혈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수혈에 의한 AIDS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혈액에 대해 AIDS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나라들을 여행할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

가 아니라면 되도록 수혈을 연기하고 서둘러 귀국해서 수혈을 받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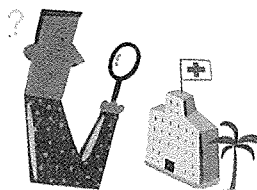
주사기나 바늘은 절대로 남이 썼던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른 사람이 한번 썼던 주사기는 아무리 깨끗하게 보여도 그 안에 혈액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 한개의 주사기를 돌려가며 사용하는 마약중독자들 중에 AIDS 감염자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주사나 수술은 조심해야 한다.

여행중 선진국이 아닌 곳에서 주사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사기는 일회용을 쓰고 있는지, 수술 시설은 완전한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상태가

위급하지 않은 경우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서둘러 귀국하여 국내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음주로 이성을 잃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

과음을 하면 체내에 알코올 농도가 높아져 우리의 이성을 흐리게 하고 자제심도 잃게 해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특히 만취상태에서 AIDS 예방 수칙을 지키기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술을 마실 경우에는 특별히 마음을 굳게 먹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Z

(자료 : 대한에이즈협회)